



만종(L'Angelus)

장 프랑수아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
1857~59년, 캔버스에 유채, 56x66cm
오르세 미술관, 프랑스 파리

입당송 | 시편 27(26), 7, 9 참조

주님, 부르짖는 제 소리 들어 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제1독서 | 예제 17, 22-24

화답송 | 시편 92(91), 2-3, 13-14, 15-16(◎ 2ㄱ 참조)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
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
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
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음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 2코린 5, 6-10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 마르 4, 26-34

영성채송 | 시편 27(26), 4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
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 | 사제평생교육원

마르코 복음서 4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먼저 4,3-8에서 예수님은 길,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①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씨가 뜻하는 바가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땅^①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의 복음인 4,26-34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4,26-29의 비유는 너무도 상식적입니다. 땅^①에 씨를 뿌리면, 땅^①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확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듣게 되자 새삼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비유에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뒤따르는 4,31-32은 작은 겨자씨가 땅^①에 뿌려지면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는 비유를 전합니다. 이 역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담고 있는 비유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씨가 땅을 만나며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선포된 하느님 나라를 알아보고 또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의 창조 질서를 묵상하며 성자가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달아 갑니다.

창세기 1,11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그리고 1,24에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창세기의 저자는 하느님이 땅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3장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은 저주받고, 7장에서 땅은 물로 뒤덮입니다. 땅이 더 이상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계속됩니다. 12장에서 하느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이, 나아가 당신께서 창조한 온 세상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훼손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생태적 회개와 전환에 대해 말합니다. 회칙은 생태계 파괴와 착취가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모든 피조물과 친교를 나눌 것을 요청합니다. 2023년 10월에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문헌인 〈하느님을 찬미하여라〉가 나왔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해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종(L'Angelus)

밀레는 이 작품에서 평화로운 농촌을 아름답게 묘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끼니를 위해 남겨진 것들이라도 캐서 먹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하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매사에 감사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렸다는 작가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 안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경애 안젤라 | 상담심리사

저는 햇수로 17년째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하는 일은 잘 듣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잘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급히 판단하는 태도를 내려놓고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으면 상담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자들은 공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 이론 공부와 실습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감 능력이 타고나는 성품인 줄 알았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따뜻한 사람이 공감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님을 이제는 압니다. 공감은 단지 한 순간 마음의 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20대였던 디자이너 패트리샤 무어는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안경, 귀를 틀어막은 솜, 균형 잡기 힘든 구두를 착용한 채 살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4년간 100개가 넘는 나라를 다니며 노인의 삶을 직접 체험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라.’는 격언을 몸소 실천한 셈입니다. 그 후 그녀는 소리 나는 주전자, 양손잡이 가위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했습니다.

공감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살과 뼈를 가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온갖 수모와 배신, 육신이 찢기는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신 분. 감히 저는 하느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인간의 몸으로 겪으셨을 두려움과 고통을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 하느님 뜻을 어기며 멋대로 살아가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자꾸 멀어져도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아는 좋은 방법은 공감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공감받을 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공감이 어렵게 느껴질 땐 일단 궁금해하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상담할 때도 몇 번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그의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애정이 생깁니다.

저는 상담이라는 귀한 일을 하게 부르신 하느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알아가고, 그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건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결되고자 할 때, 그 마음 자체는 가닿지 않을까요.

예수 성심이 뭐죠?

예수 성심(聖心)은 말 그대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뜻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가톨릭의 모든 신심 중 ‘가장 고귀한 신심’이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르 9,7)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상대학원 교수

‘아니, 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 말씀 하십니다. 앞으로 당신이 겪게 될 수난과 죽음을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갈릴래아 주변에서 퍼져나가는 스승님의 명성을 생각할 때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 몇몇 율법 학자들과 헤로데 당원들과 마찰을 빚으셨지만, 그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비약으로만 들립니다. 괜한 공명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며 스승님의 말씀에 흥분을 감추지 않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데!

옛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정상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란 제자들은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그런데 더 말문을 막히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 이야기를 들으며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조상이며 예언자인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가! 율법과 예언서를 아우르는 두 분과 함께 우리 스승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9,5) 베드로의 떨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초막 셋을 지어 스승님과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싶다는 열토당토않은 말까지 내뱉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더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그들 곁에 남아계셨습니다.

잠시 꿈을 꾸 것일까? 이토록 황홀한 순간이 왜 펼쳐진 것일까? 마르코는 그 이유에 대해 어떤 자세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활동을 드러내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성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밝혀주신 이 사건은 분명 제자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을 때, 부활의 빛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신 것인지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죽음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부활의 기쁨에 취해 초막을 짓고 안주하려는 나약함을 보이지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고 그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때가 되었음을 제자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마르 16,16)이라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과 세례를 말씀하셨고, 세례 여부는 언급 없이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서에서는 ‘최후의 심판’ 예화를 들며, 믿음이나 세례가 아니라,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의 조건이라 말씀하십니다.(마태 25,31-46) 게다가 사도행전에서는 ‘경외’와 ‘의로움’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사도 10,3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에서는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 통치와 친교의 유대로 결합”된 사람이 진정한 가톨릭 신자이고, “교회의 품 안에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교회헌장> 14항) 즉 가톨릭교회는 세례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며, 사랑을 실천하면 구원에 가깝다고 가르칩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에 소속됨은 구원의 필요조건이고, 믿음을 통해 올바르게 사는 것은 구원의 충분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르지만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역시 구원 가능성이 있습니다.(<교회헌장> 16항) 다시 말해, 올바른 천주교 신자는 구원의 ‘확실성’을 얻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란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제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느님 은총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선함이 무엇인지 알지만, 항상 거기에 맞춰 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과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 동시에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는 중요한 방법이자 통로입니다. 하느님 사랑을 통해 인간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천주교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를 믿으면 분명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에게도 과거는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는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일지라도 부끄러운 과거는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회개한다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은 있습니다. 성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 하느님과 함께한다면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은 가능합니다. ‘삶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과 같다.’ 아빌라의 대 테레사 성녀가 하신 말씀인데, 이는 구약의 지혜서 5장 14절, “(삶은) 단 하루 머물렀던 손님에 대한 기억”이란 구절에 근거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 삶이 순간이고, 찰나(刹那)이며, 금방 사라진다고 알려줍니다. 삶이 속절없이 허무한 것임을 알려주는 이 말씀은 동시에 하느님의 영원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습니다.(시편 90 참조)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여섯 번째 인터뷰!

1지구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회장단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1지구(중구·용산) 중고등부 교사연합회 회장단을 만나보았습니다



회장
서정민 마가렛



부회장
유하민 보나



회계
양준영 아브라함

이번 6월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선생님들의 삶에서 복음은 어떤 의미인가요?

서정민 마가렛(회장) 제 삶에서 복음이란 이해와 배려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지만,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 자체가 복음을 실천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요.

유하민 보나(부회장) 저는 복음 말씀을 통해 **의연하고 관대한** 생각을 얻어요. 그러면 지칠 때마다 생기는 가시돋힌 마음도 없어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양준영 아브라함(회계) 제 삶에서 복음은 생각을 더 키워주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는 동화책처럼 복음을 읽었고, 수험생 시절에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였으며, 지금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비취렸을 때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유 보나 저는 마음의 품을 넓히며 살려고 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전체를 바라보며 조금씩 앞으로 걸어 나가다 보면 어떤 존재든 꺼안아 사랑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양 아브라함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님이 되고 싶은데, 그럴 때일수록 복음을 통해 배워가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그 배움을 바탕으로 1지구 활동에 보탬이 되는 청소년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나요?

서 마가렛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닮고 싶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사랑을 학생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학생들이 사랑을 가득 받으며 성장하고,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요!

양 아브라함 바로 친구 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권위적이고 다가가기 어려운 선생님이 아닌, 고민을 편하게 들어 줄 수 있고 친근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교사 성구 혹은 마음에 새긴 성경 구절이 궁금해요. 이유도 함께 말해주세요.

서 마가렛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부족할 때, 이 구절을 읽게 되었는

데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 보나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마태 2,10) 밝은 존재인 학생들과 어둠을 온화하게 만드는 신부님, 수녀님, 교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별 아래 고요한 밤바다를 건너는 뗏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양 아브라함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태 7,7) 예수님께 청하는 어떠한 것이든 꼭 이루어 주실 것만 같아요. 힘든 일이 있거나 청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 이 성구를 생각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회장단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교사연합회를 이끌어 가고 싶은지 마음가짐을 말해주세요!

서 마가렛 1지구 선생님들의 편한 동료가 되고 싶고,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싶어요. 올 한 해도 1지구 중·고등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유 보나 각 본당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삶을 잘 헤아리면서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영화 '괴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작,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하늘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구름이 떠다니는 곳까지 라면 그 높이는 약 10킬로미터라고 할 수 있지만, 푸른 창공을 말한다면 지구 대기까지의 높이인 약 1백 킬로미터라고 답해야 합니다. 만약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높이는 약 1천 광년이라고 말해야 하고, 온 우주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높이는 수백억 광년이 됩니다. 하늘의 높이를 10킬로미터라고 답했다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배경 복사를 언급한다 해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 하늘의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 하늘이 모두가 이해하는 하늘로 수렴이 가능합니다. 이를 깨닫게 되는 순간,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괴물>은 하나의 이야기를 향한 세 가지의 다른 시선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향한 우리의 편협해지기 쉬운 시선을 성찰하도록 이끕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첫 번째 시선은 아들 미나토(쿠로카와 쇼야 분)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호리(나카야마 에이타 분)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엄마 사오리(안도 사쿠라 분)의 시선입니다. 이 시선에서 호리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물로 비칩니다. 두 번째 시선은 학교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학생 미나토를 대하는 호리 선생님의 시선입니다. 이 대목에서 영화는 관점을 바

꿔 호리 선생님의 시선에서 동일한 상황을 복기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미나토와 미나토의 친구 요리(히이라키 히나타 분)의 시선을 담습니다. 이제 두 어린이의 시선을 바탕으로 그간 쌓여온 오해와 숨겨져 있던 비밀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 세 가지의 시선을 모두 마주하고 나면 동일한 상황이 각자의 시선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고 단정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괴물'이란 선입견과 편견에 휩싸여 상대방을 괴물로 만들려고 하는 세태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하나의 시선만으로 선과 악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단정 짓는 일이, 그렇게 하늘의 높이를 단 하나의 답으로만 규정지으려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가를 보여주고, 이 같은 태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중국에는 관객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에 기반한 편협한 태도와 혐오의 시선이 만연한 이 시대에 신앙이 제시할 수 있는 참된 진리는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시선을 염두에 둔 삶의 자세를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 이를 부정하려 드는 흐름에는 열렬히 저항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위한 신앙인의 과제이자 숙명일 것입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이해옥 신부	원로사목사제	정직
최성기 신부	제2 서대문-마포지구장	겸)가재울 본당 주임서리
김지영 신부	가재울 본당 주임	정직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8년 6월 21일 서우석 요한 신부(44세)
- 2010년 6월 17일 박대웅 세례자요한 신부(57세)
- 2021년 6월 19일 신광호 베드로 신부(44세)

예수 성심 성월 기도문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교구청 알림

한국교회사연구소 동인회 2차 특강에 모십니다

주제: 러시아 문화기행 / 문의: 010-6764-7004
강사: 이주홍 박사(러시아 언어문화 전공)
때, 곳: 6월26일(수) 19시30분, 종로성당 강당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7월1일(월)까지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박주열 스테파노, 박상운 베드로, 이한신,
황승민 /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제63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때, 곳: 6월20일(목) 11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생명을 이야기하는 '우리농 물품화곡'

대상: 본당 우리농 생활공동체 활동가, 우리농
회원, 관심있는 신자
주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밥상'
때: 6월20일(목), 27일(목) 오전 10시 시작
곳: 서울대교구청 501호 / 회비: 1만원(우리은행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문의: 02)727-2275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
본부 /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wm.or.kr) 참조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임향숙(수잔아트 갤러리) · 김지영(시유네) 2인전: 1전시실
류재영 개인전: 2전시실
안소현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6월19일(수)~27일(목)

2024 신구약 성경통독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매주(월) 또는 (화) 13시~15시, 월요성경 온
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민족화해위원회

- 1) 1423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6월1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중화 본당
- 2) 2024 DMZ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대상: 만 20세~39세 청년 40명
때, 곳: 8월29일(목)~9월1일(일) 연천 · 철원 접경지역
접수마감: 7월10일 / 회비: 10만원
문의: 02)753-0815(문자로신청: 010-4682-2412)

2024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주제: 루카 복음의 평화: '죄로부터의 자유'
때: 6월26일(수)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해화동)
강사: 박진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접수: 5월14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
(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신청자 400명)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지 해설사 양성교육 및 시복시성미사

1) 2024년 성지안내해설사 양성교육

대상: 순교자현양회의 성지안내 해설사(봉사자)
로 활동을 원하는 62세(1962년생) 이하의 신자
때: 7월~10월 매주(월·수) 19시(7월1일 개강)
곳: 교구청 회의실(중구 명동) / 회비: 10만원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
조바랍니다(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2) 시복시성미사(199회)

이 달의 하느님의 종 '최마리아'
때, 곳: 매일 셋째주(화) 6월18일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4년 하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원서접수: 7월8일(월)~26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 요망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
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www.casm.co.kr) 성음악위원회

하 반 기	개강일정	2024년 8월31일 개강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교육과정	교회음악가자격증과정: 3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전례음악집중교육과정: 2학기 과정 / 주말반 운영 아카데미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입시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고령)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 피정
때: 6월18일(화) 13시~16시 / 문의: 010-3341-1354
곳: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 강사: 김종일 신부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예수전교회 치유대피정
때: 6월22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강사: 황인숙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종식 무료)
때, 곳: 7월1일(월) 10시~16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피정·강좌
곳: 삼성동 / 문의(접수): 010-3845-3045
담당: 정규한 신부(예수회)
1)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15명)
내용: 강의, 기도, 질의응답 / 회비: 3만원(점심 포함)
때: 매일 셋째주(수) 10시~16시 6월19일·7월17일
2) 생활기도수련원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10주 강좌
때: 매주(금) 13시30분~16시 / 내용: 이나시오 영신수련
강의 방법: 현장, Zoom, 녹화강의 병행

피아골 피정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지리산 피아골	7월19일~20일, 8월3일~5일
대구교구	7월5일~6일, 왜관 문화영성센터
수도원 순례	10월9일~12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지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생태 순례	7월19일~21일, 9월1일~3일, 9월20일~22일
여름 특별 피정 (우도 해변 포함)	7월25일~28일, 8월2일~5일, 8월8일 ~10일, 8월14일~17일, 8월21일~23일
추자도 성지순례	9월7일~10일, 10월7일~10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7월5일 10시~15시30분
대침묵 피정	6월21일(금)~23일(일), 8월16일(금)~18일(일)
다네이영성수련 피정	8월22일(목)~25일(일), 10월25일(금)~27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
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3지구 매월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백준호 신부(프란치스코 수도회, 쪽방촌 봉사)
때, 곳: 6월19일(수) 12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 강당

예수회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때, 곳: 4박5일 8월6일(화)~10일(토) 18시·일상생
활 속의 영신수련 8월26일~12월16일 매주(월),
예수회센터 / 문의(접수): 02)3276-7794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지도: 허성준 신부(외)
때: 8월1일(목)~4일(일) / 회비: 38만원(1인실)
곳: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왜관 수도원 내)
문의: 010-8599-3127 한릿다(왜관 성 베네딕도회)

성지순례·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전례 탐방
때: 7월13일~16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 8월
17일~19일(원주·청주·안동), 8월24일~26일(대구
17곳), 10월12일~16일(울릉도·독도·수도원)
출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 문의: 010-3807-
1784 라 이시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우도해변 포함 7월12일~14일·7월20일~22일
·7월25일~28일·8월1일~4일·8월6일~8일·8월10
일~13일·8월24일~26일, 7월1일~4일(추자도 포
함)·9월2일~4일·9월7일~9일·9월11일~14일(추)·9
월21일~23일·9월26일~28일·10월1일~3일 / 문의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서강대학교 '영성의 책꽂이' / 문의: 02)705-4711
때, 곳: 6월17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서강대학
교 이나시오 소강당 / 강사: 심종혁 신부(예수회)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7월16일~30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왜 다시 '문화의 복음화'인가?' 세미나
때: 6월27일(목) 14시~17시 / 누구나 참여 가능
곳: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3호) / 문의: 010-
8724-2012 이 에밀리아(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접수: 수시 가능 / '사이버성경학교' 검색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2024년 가톨릭 뮤직캠프(1박2일) 접수
때: 8월23일(금) 17시~24일(토) 1박2일
곳: 민족화해센터(파주) / 회비: 15만원
과목: 소프라노, 알토, 남성, 기초발성반
50명 선착순 접수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모니카교회음악원)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미국·아
일랜드(단기 가능) /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생활성가 반주법(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때, 곳: 목요일반 매주(목) 19시~21시·금요일반
매주(금) 10시~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7층 710호 / 회비: 20만원(2개월 8회 기준)
문의(접수): 010-7244-1312 한상희 강사

서강대학교 제1기 은퇴자산운용 최고전문가과정
주요과정: 은퇴자산, 양도, 증여, 경매, 관리, 빅
데이터, 법률 / 홈페이지: <https://scec.sogang.ac.kr>
때: 7월10일~10월30일 매주(수) 19시~21시(15주)
곳: 서강대학교 감내건관 101호 / 회비: 350만원
문의: 02)705-8718, 8679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2024년 후기 2차
신·편입생 모집** / 문의: 02)3147-8781
사회복지학 석사과정(4학기) / welfare.catholic.ac.kr
학과: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노인복지, 정신건강복지
접수: 6월17일(월)~7월7일(일) / 면접: 7월19일(금)
곳: 서초구 반포대로 222 성의회관(서울성모병원내)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38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9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개강: 7월3일(수) 초급반, 7월4일(목) 중·고급반
인원: 초급반 15명, 중·고급반 약간명
접수: 6월16일~7월4일(선착순) / 010-7118-0334

(수)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고급반 14시~16시30분

에파타성당 수어교실 개강
회비: 6개월 12만5천원 / 문의: 02)995-7394

개강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8호
7월10일(수)	13시30분~15시	-
7월11일(목)	20시~21시30분	19시~20시50분
7월12일(금)	-	19시~20시50분

제24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토덤, 서유럽투어)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월)	문화유산으로 보는 교회사 (고대·중세) / 현장만 가능	이진현 신부
(화)	영성과 심리의 통합 첫번째 길 불완전한 영혼의 영적 여정	최지원 수녀
(수)	구약성경 아카데미·시편 해설	주원준 박사
(수)	룻을 읽자	김민 신부
(목)	서구의 그리스도교 미술	박혜원 강사

모집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7월8일(월) / 문의: 010-9836-8998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3006-0810
오디션: 6월23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첫영성체 받은(2024년 예정) 초3~초6 가톨릭 신자 /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오디션: 6월23일(일) 13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 6월20일(목)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6월20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6월20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6월17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6월17일(월) 14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6월21일(금) 11시~14시 / 강의·미사 접수 필수
곳: 예수성심전교수도회 관구 본원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6월24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푸스데이 설립자 성 호세마리아 축일 미사

주례: 박정우 신부 / 일상생활의 성화라는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신자들을 환영합니다
때, 곳: 6월22일(토) 오전 9시, 도림동성당
문의: 02)727-2480(info.kr@opusdei.org)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부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안내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익산 성클라라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수도원을 철거하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겸손히 요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모짜르트 레퀴엠 공연

한국오라토리오싱어즈 제37회 정기연주회
때, 곳: 6월22일(토) 17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콜레기움 무지콰서울 오케스트라 협연
문의(티켓구입): 010-6292-6225 시스피나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중독과 영성 7월9일(화)·10일(수) 10시~13시(2일간)
(7월 특강) 강사: 홍성민 신부 / 회비: 6만원
내영혼이 깃드는 집, 나의 몸 7월5일(금)~6일(토) 1박2일 과정

유관단체 알림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Zoom) 교육

주제: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 문의: 02)744-0840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이세라 연구원
때: 6월28일~7월19일 매주(금) 19시30분~21시30분(4주)
주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햇살사목센터 / 6월25일까지 접수(회비: 4만원)

한민족동교회 통일가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6월25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7171-9503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판매·영업·물류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l1886@catholicbook.kr) 접수

창5동성당 계약직 관리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인원: 1명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6월23일), 2차 면접(개별 연락)
6월22일(토)까지 이메일(france@seoul.catholic.kr) 및 방문 접수 / 이메일 문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환경·창조보전운동에 소명의식이 투철한 분 / 분야: 환경사목 홍보·교육 담당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6월23일(일)까지 이메일(aoina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전농동성당 관리인 모집 / 문의: 02)2241-7841

인원: 1명(계약직) / 업무: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필수: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하고 건강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우편·방문(우 02548,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9길 25(전농동) 전농동성당 사무실)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주방 근무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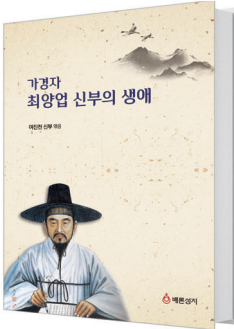
곳: 종로구, 중구 /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 근무자 0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6월23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a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인헌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 문의: 02)884-1581

대상: 신자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분
업무: 시설관리, 전기, 방호, 미화, 화단정리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각종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월30일(일)까지 이메일(andy9314@seoul.catholic.kr) 및 방문·우편(우 08797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48길 78-2)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말씀의 회	6월23일(일) 16시 / 수시	신내동성당 수녀원	010-8446-3217
미래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6월23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	7월6일(토) 13시~7일(일) 16시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010-4468-5628 형제회, 010-4830-2820 자매회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생애

여진천 엮음
기쁜소식 | 64쪽 | 5천원
문의: 02)762-1194

2021년 출간됐던 《어화우리 벗님네야 우리본향 찾아가세》가 재출판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양업 신부님의 생애와 신앙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으며, 그 내용을 기초로 최양업 신부님의 일생을 문제로 풀어볼 수 있게 꾸몄다. 또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 기도문'과 '전구 기도'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에 대한 설명을 함께 실었다.



신간

제2권 특수윤리신학
자유와 충실

베른하르트 헤링 지음
바오로딸 | 872쪽 | 4만원
문의: 02)944-0944

《자유와 충실》은 가톨릭 윤리신학 전반을 다룬 대작으로서 총 세 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 책은 제2권 특수윤리신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규범이나 이론을 정립해 놓은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 영성서와 같다. 저자의 그리스도론은 학문의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 찬미가요 사시로 느껴질 만큼 깊이 있고 풍부하며 감동적이다.



콘서트

6월 JU콘서트
5th 음악이 있는 나무 요일

일시: 6월 27일(목) 19시 / 무료 입장
장소: 청년문화공간JU 1층 카페(전철 2호선 흥대입구역 2번 출구)
문의: 02)338-7830

6월 27일(목) 19시, 청년문화공간JU에서 <6월 JU콘서트 5th 음악이 있는 나무 요일>이 진행된다. 청년문화공간JU는 지난해 새롭게 개관하여 청소년·청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콘서트를 기획했다. 다섯 번째인 이번 콘서트에는 초대 손님으로 피아니스트 아마파17(김지원, 홍효림, 안정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음악회

국립합창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때, 곳: 6월 25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의: 1668-1352 예술의전당,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 제198회 정기연주회 <합창음악, 그 위대한 역사적 시대를 돌아보다>가 오는 6월 25일(화) 19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다. 민인기 단장 겸 예술감독의 지휘와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아우르는 위대한 명작을 통해 합창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YouTube

가톨릭튜브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튜브'를 검색하세요.



가톨릭튜브는 가톨릭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 가톨릭 문화를 즐겁고 유익하게 전합니다.

매월 선정된 주제에 따라 다양한 가톨릭 성가를 감상할 수 있는 <월간 성가>, 주보에 게재하는 교리상식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한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톨릭교회의 여러가지 소식과 정보를 즐겁고 유익하게 전하는 <알려드립니다>까지

가톨릭튜브는 서울주보에 담지 못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코너 4) 월간성가



(코너 5)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6) 알려드립니다